

sanarae hakdan

# ECHOES OF NATURE 2



# 바람이 남긴 자리

바람은 늘 곁을 스쳐 간다. 눈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분명히 흔적을 남기고 간다. 풀잎이 일제히 흔들리며 햇살을 반짝이고,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낼 때, 나는 바람이 다녀갔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공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내게 말을 건네는 존재처럼 다가왔다.

언덕 위에 올랐던 어느 날, 눈을 뜨기조차 힘들 만큼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뺨이 얼얼할 정도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 안에 쌓여 있던 걱정들을 한순간에 쓸어가 버리는 듯 시원했고, 지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듯 다정했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았다. 발은 여전히 땅에 닿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새처럼 자유로웠다.

바람은 늘 변한다. 아침에는 부드럽고, 오후에는 차갑고, 저녁이 되면 다시 잔잔해진다

그 변화는 사람의 마음과 닮았다. 기쁠 때는 더 가볍게 나를 띠우고, 슬플 때는 더 깊이 파고든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맞으며 내 안의 감정을 들여다본다. 바람은 나의 거울이자, 위로다.

나는 가끔 바람에 몸을 맡기는 상상을 한다. 높은 산을 넘어 바다를 지나고, 누군가의 창가를 스치며 내 마음을 전하는 모습 말이다. 보이지 않아도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처럼, 나의 마음도 언젠가 소중한 이에게 닿을 거라 믿는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다시 내 뺨을 스쳤다.

“오늘도 잘 버텼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은 언제나 나를 알아봐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일도 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나는 또다시 그 자취를 따라 걷고 싶다.

# 강물의 노래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은 작은 시냇물이 되고, 다시 모여 강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을 지나면서도 강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간다. 나는 그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다. 돌에 부딪혀 튀어 오르는 물방울은 어린아이의 웃음 같고, 잔잔히 이어지는 흐름은 오래된 자장가 같다.

발끝을 물에 담그면 서늘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진다. 순간, 마음에 남아 있던 불안과 걱정이 차갑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든다. 물은 말이 없지만, 대신 끊임없이 흘러가며 대답을 건넨다. “머무르지 마라. 흘러가라.” 나는 그 속삭임을 들는 순간, 내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강물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지만, 어제와 오늘의 물은 같지 않다.

강물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지만, 어제와 오늘의 물은 같지 않다. 그 당연한 진실이 나를 자주 멈춰 세운다. 같은 자리에서 있어도 매일 달라지는 내가 있음을 강은 보여 준다. 기쁠 때는 더 빛나게, 슬플 때는 더 무겁게 흐르는 강물은 내 마음의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가끔 강물이 되어 보고 싶다. 산을 내려와 숲을 지나고, 마을을 적시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모습. 흘러가면서도 다시 만나고,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삶. 강은 그렇게 스스로를 잃지 않고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물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강물은 오늘도 쉼 없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노래를 따라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언젠가 내 마음도 저 강처럼, 맑고 단단하게 흐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 숲의 숨결

숲에 들어서면 먼저 공기가 달라진다. 도시에서 맡던 바람과는 전혀 다르다. 서늘하면서도 촉촉한 향기, 오래 묵은 나무와 흙이 섞여 내뿜는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든다. 나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마치 숲이 나를 끌어안으며 “괜찮아, 여기선 쉬어가도 돼”라고 말해 주는 것 같다.

길가의 나무들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대로, 저마다의 모양으로 서 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반짝이며 바닥에 흩어진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 개의 잎사귀가 한꺼번에 흔들리며 은은한 합창을 이룬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세상 모든 복잡한 생각이 한순간 멀어지는 듯하다. 나는 숲길을 걸으며 내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는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던 기억들도, 자꾸 떠올라 괴롭히던 불안도 숲 속에서는 금세 힘을 잃는다. 대신 작은 새의 지저귐, 발밑의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 풀벌레의 울음이 내 안을 채운다. 숲은 말이 없지만, 내가 건네지 못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 같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숲의 숨결이 내 호흡과 하나가 된다. 공기가 내 몸을 지나가며 차갑게 스며들고, 다시 따뜻하게 빠져나간다. 그 리듬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숲은 나에게 기다림을 가르친다. 나무가 한 해, 또 한 해를 견디며 자라듯이, 나도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고 알려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숲에서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돈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숲이 없다면 나의 마음은 어디에서 숨을 고를 수 있을까? 숲의 숨결은 나를 살게 하는 또 하나의 호흡이었다.

# 눈이 내리던 날

눈이 내리는 날은 세상이 달라진다. 평소에는 시끄럽게 울리던 소리들도 눈송이 속에 파묻혀 조용해진다. 나는 창가에 앉아 하얀 빛이 하늘에서 끝없이 흘날리는 모습을 오래 바라본다. 하늘은 그저 무심히 눈을 내리지만, 땅 위의 풍경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 지붕도, 나무도, 길도 모두 고르게 덮여 같은 색을 입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밖으로 나가 눈을 맞는다. 손바닥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는 잠깐의 반짝임을 남기고 금세 사라진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늘 소원을 빈다. 혹시 이 작은 눈송이가 내 마음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다. 사라짐은 허무가 아니라, 순간의 소중함을 더 선명하게 알려 준다. 눈송이는 사라지지만, 내가 빌었던 마음은 오래 남는다.

눈길을 걸으면 발 밑에서 “뽀드득” 하는 소리가 난다

그 단순한 소리는 묘하게 기분을 가볍게 만든다. 가끔은 일부러 길게 돌아서 걷는다. 새하얀 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새기고 싶어서다.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선명히 남아 있다. 눈은 쉽게 지워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난 온 길이 분명히 기록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해가 저물어도 눈은 계속 내린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눈송이들은 마치 별빛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을 본다. 어쩌면 저 수많은 눈송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일지도 모른다. 오늘 내린 눈송이 중에는 내 비밀을 들어주는 친구도, 내일의 희망을 전해주는 전령도 있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 얼굴에 스쳤다.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다. 눈이 내리던 날, 나는 세상이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들어주는 듯 한 위로를 받았다.

# 별빛 아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작은 빛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낮에는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던 별들이, 어둠이 내려앉자 하나둘 불을 켠다. 나는 그 아래에서 고개를 젖히고 서 있다. 별빛은 조용히 내려와 내 어깨와 손등을 스친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처럼 나를 위로 하는 듯하다.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별들이 산 위에서는 쏟아지듯 보인다. 처음에는 그 많음을 믿기 어려워 멍하니 바라본 적도 있다. 별빛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저 먼 곳에서 오랜 시간을 건너와 지금 내 눈앞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롭다.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 동시에, 그 작음이 이상하게 편안하다. 별빛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다. 어떤 별은 나에게 “걱정하지 마, 네 길은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고, 또 어떤 별은 “조금 더 기다리면 빛이 널 비출 거야”라고 말하는 듯하다. 나는 그 말 없는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이 차분해지는 걸 느낀다. 나는 가끔 별이 되어 날아가는 상상을 한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은은한 빛으로 비추는 모습.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올려다본 별빛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별빛은 크지 않아도 길을 밝혀 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의 별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은 수천 년 전의 과거에서 온 것이라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빛으로 내 마음을 적신다. 별빛 아래에서 나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 봄꽃이 피는 날

겨울이 긴 숨을 고르고 나면, 봄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땅 사이에서 작은싹이 고개를 내밀고, 어느새 길가의 나무에도 연한 초록빛이 번진다. 나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 주는 봄꽃을 기다린다. 꽃은 말없이 피어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어느 날 학교 가는 길,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길모퉁이에 벚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다. 햇살을 받은 꽃잎은 투명하게 빛났고,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마음이 그 순간 풀어지는 것 같았다. 꽃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봄꽃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금세 지고, 바람에 흘날리며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하다고 느낀다.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더욱 마음 깊이 새겨 둔다. 떨어지는 꽃잎이 아쉽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절로 나아갈 용기를 건네주는 것 같다.

나는 종종 내 삶도 봄꽃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빛나는 순간은 짧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지탱한다. 힘든 시간을 지나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그 때의 환한 순간들이다. 꽃은 다시 피고, 다시 진다. 그 순환 속에서 나는 매번 새로움을 배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에 흘날리는 꽃잎이 내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가만히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놓아주었다. 꽃잎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봄꽃이 피는 날, 나는 계절의 시작과 함께 내 안의 희망도 다시 피어나는 걸 느꼈다.

# 가을 단풍길

가을이 되면 길은 온통 다른 옷을 입는다. 여름 내내 짙은 초록빛이던 나무들은 어느새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고, 황금빛 노란 잎이 바람에 훌날린다. 나는 단풍길을 걸을 때마다 그 변화가 믿기지 않는다. 같은 나무인데, 계절이 달라 지자 전혀 다른 얼굴로 나를 맞아 주기 때문이다.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나무들이 속삭이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변했으니, 너도 변해도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듣는 듯 마음이 가벼워진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마음이 단풍빛 속에서 서서히 풀린다. 길 위에 내려앉은 수많은 잎들을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 연주되는 가을의 음악 같다.

가끔은 단풍잎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둔다.

붉은 결마다 지난 계절의 이야기가 스며 있는 듯하다.

잠시 후 손끝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나는 그 짧은 만남을 애뜻하게 기억한다. 단풍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덧없음이 오히려 지금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

나는 단풍길을 걸으며 내 안의 계절도 함께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여름의 열기 속에 지쳐 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듯 단단해진다. 단풍은 내게 매년 “너도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하고 묻는다. 나는 그 물음 앞에서 작아지지만, 동시에 힘을 얻는다.

해가 기울어 단풍잎이 황금빛으로 빛날 때, 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자 수많은 잎들이 흘날리며 하늘을 수놓았다. 나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단풍길은 내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변화 속에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 새벽의 고요

새벽은 늘 낮과 밤의 틈새에 숨어 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창문을 열면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아직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고, 하늘은 푸른빛과 검은빛이 섞여 묘한 색을 띤다. 나는 그 시간에 종종 눈을 뜨곤 한다. 이유 없이 일찍 깬 날이면, 세상이 내게만 선물한 비밀 같은 순간을 만난다.

바깥은 고요하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대신 귀에 들어오는 건 작은 것들이다. 풀벌레의 잔잔한 울음,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의 흐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남기는 아주 미세한 흔적. 낮에는 쉽게 지나치던 소리들이 새벽에는 또렷하게 들린다. 그 소리들이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만 들려주는 음악 같다.

나는 새벽의 하늘을 오래 바라본다. 동쪽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면, 검은빛은 물러나고 붉은빛이 서서히 퍼져나간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 빛은 분명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낀다. 어제의 고민과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새벽의 빛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라고 속삭여 준다.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내 안의 고요와 마주한다. 낮에는 바쁘게 달리느라 듣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가 새벽에는 또렷하다. 두려움, 바람, 소망…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나를 찾아온다. 나는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가만히 눈을 감는다.

해가 떠오르면 새벽은 금세 사라진다. 다시 소음이 세상을 채우고,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새벽의 고요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 고요는 언제든 내가 지치고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 밤의 강

밤의 강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해가 진 뒤 강가에 서면, 물빛은 검게 가라앉아 하늘을 그대로 품은 듯하다. 반짝이는 별들이 물 위에 흘어져, 마치 강물이 별빛을 끌어안고 흘러가는 것 같다. 나는 그 풍경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다. 낮 동안 들끓던 생각들이 물결에 실려 차츰 멀어지는 느낌이다.

강물은 여전히 쉼 없이 흐르고 있지만, 그 소리는 낮보다 부드럽고 깊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내게만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듯하다. 나는 강가에 앉아 귀를 기울인다. 바위에 부딪히는 작은 물소리, 갈대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숨결,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이 하나의 합주처럼 이어진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세상이 여전히 숨 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어두운 물결 속에서 가끔 달빛이 길을 만든다.

흔들리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빛의 다리를 따라가면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나는 언젠가 그 길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물 위로 발을 내디디면 두려움 대신 별빛이 나를 붙잡아 줄 것만 같다.

밤의 강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채우는 고요다. 나는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꺼내어 놓는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들이 강물에 스며들고, 물결은 그 말을 품고 멀리 흘러가 준다. 집으로 돌아서는 길, 뒤돌아본 강은 여전히 검고 잔잔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남아 있었다. 밤의 강이 별빛을 품듯, 나 역시 오늘의 기억을 담아 조용히 흘러가고 싶다.

# 들판의 햇살

아침 햇살이 들판에 내려앉을 때, 세상은 새롭게 깨어난다. 이슬 맷힌 풀잎마다 작은 빛이 반짝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은 금빛 물결처럼 일렁인다. 나는 그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른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단순한 온기를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들판 위에서 햇살은 그림자를 만들며 또 다른 풍경을 그린다. 나무는 긴 팔을 뻗은 듯 서 있고, 길가의 작은 돌멩이조차도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세심하게 빛을 나누어 주는지 새삼 깨닫는다. 햇살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고르게 내려앉는다. 그 넉넉함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낀다. 햇살은 내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한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겁던 날에도, 들판 위에서 햇살을 맞으면 조금씩 짐이 가벼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리는 것 같았다. 햇살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다정한 위로를 건넨다.

나는 가끔 햇살을 따라 나도 빛이 되고 싶다는 상상을 한다. 누군가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살짝 비추고,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덥혀 주는 존재. 햇살은 늘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고도 세상을 감싸 안는다.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배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살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들판의 햇살은 그저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심어 주는 다정한 친구였다.

sanarae hakdan